

# 신양파크 활용 무등산 공유화사업 2년째 답보

부지 매입비 혈세 369억 투입  
연간 이자 비용만 18억 달해  
광주시 주관부서조차 없이 방치  
협의회 수차례 논의도 백지화  
홍물 전략 우려 속 더딘 행정 빈축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광주시가 369억원을 들여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한 신양파크호텔 정문이 31일 굳게 닫혀있다. /나명주 기자 mjna@

지난 31일 찾은 광주시 동구 옛 신양파크호텔은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입구 철문이 쇠사슬로 꽂혀 있어 들어갈 수 없었다. 한때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였던 신양파크호텔은 장기간 방치되고 건물 외벽 색마저 바래가면서 애처로워 보이게 되었다.

1980~1990년대 고품격 결혼·연회 등의 장소로 신양파크호텔 전성기를 기억하는 시민들은 수년째 활용은커녕 방치만 하고 있는 광주시의 더딘 행정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무등산 탐방을 위해 호텔 앞을 자주 오간다는 시민 김민식(49·광주시 동구)씨는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을 한다고 해 기대했는데, 수년째 철문만 굳게 닫혀 있다"면서 "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땅을 샀으면, 빨리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시민에게 공원이거나 주차장이라도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기들 (시정 공무원들) 땅이면 수백억원짜리를 이렇게 방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옛 신양파크호텔을 활용한 무등산 공유화 사업이 369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세금만 투입한 채 2년 가까이 걸렸고 있다.

무등산 장원봉 자락에 자리잡은 호텔은 이미 홍물이 됐고, 광주시는 사업 주관부서조차 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부지 매입비용에 대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민선 7기 때인 2020년 10월 무등산 내 신양파크호텔(부지면적 4만 993㎡·건축물 1만 5682㎡)이 폐업한 자리에 호화 주택단지 건립이 추진되자,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369억원(3년 분납)을 들여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을 결정했다.

시는 2021년 소유자였던 (주)대양인투스, (주)디자인씨티측에 계약금 29억원을 지급하고 2022년 중도금 220억원, 2023년 1월 잔금 120억원 등 총 367억 3000만원을 지급한 상태다. 시는 잔금 1억 7000만원은 해당 회사의 채권 가입류 해제 후 집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부지 매입 후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관·정 협의회를 구성해 16차례 본회의를 열었으며,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3대 원칙으로 ▲시민 중심의 무등산 공유화 거점 조성 ▲무등산권 생태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중심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등산 가치의 세계화 등으로 정하고, 시민정원을 갖춘 가치 '생태시민호텔' 조성 등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강기정 광주시장이 부지 매입은 존중하되 재정부담 최소화, 시민 열린공간 등 이른바 3대 원칙을 강조하면서, 2년 여의 논의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열린 민·관·정 협의회에서도 강 시장이 제시한 재정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호텔건물 철거 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시청 내 관련 사업부서를 일원화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를 놓고 지역사회 일각에선 시민 세금을 무려 369억원이나 들여 매입한 부지를 단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의견부터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광주만의 상징성을 담은 랜드마크인 '시티 타워' 건립, 케이ابل 설치까지 거론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답답한 것은 광주시의 더딘 행정이다. 지난해 11월 민·관·정 회의 이후 3개월이 다 되도록 민·관·정 협의회에서 결정한 기본적인 사업 주관부서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매입대금 369억원에 대한 은행이자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이날 기준 광주시의 은행대출이율은 5.06%로, 369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만 18억 6700여만원(월 1억 5000여만원)에 이른다.

이해모 국립공원 무등산지킴이 시민연대 운영위원장 "무등산 공유화 사업이 지연되면서 무등산 초입의 홍물이 되고 있다"면서 "광주시민의 긍지인 무등산을 잘 지켜내고 보전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양파크호텔 활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묶여 있는 풍산개 프라이팬·건축자재로 무차별 폭행한 의사

광주지법, 징역형 선고

목줄이 채워진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의사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박민우)은 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0)씨에게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공장에 침입해 목줄이 채워진 채 출입구에 있던 풍산개를 프라이팬과 알루미늄 건축자재 등으로 22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일행과 함께 지나던 A씨는 풍산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공장 마당 안까지 들어가 128만여원의 치료비가 나오도록 개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개로부터 위협받은 행위를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일행처럼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었는데도 목줄에 매여 있는 풍산개를 위협한 물건으로 마구 때렸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A씨는 동물의 생명 보호를 꾀하는 동물보호법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뿐 아니라 무차별적 잔혹성을 가진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벼지 않지만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의 범행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내리막 도로서 자전거 추락사 울타리 미설치 구청 손배 책임

급경사의 내리막 도로에 울타리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6단독(부장판사 김준화)은 광주시 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북구가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사망 당시 79세)씨는 2021년 1월 18일 북구의 한 내리막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1m가량 추락해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북구가 방호울타리·경고판 설치 등 도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789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북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당시 많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럽고, 급커브구간인 내리막인데도 교통의 B씨가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다 추락한 점 등을 고려해 북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여수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 원인은 부실시공

여수시 웅천동 공사현장 흙막이 붕괴사고(광주일보 2022년 11월 3일자 7면)의 원인은 부실시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여수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여수시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사고의 원인과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공사장에서 지하 터파기 작업 중 흙막이벽이 무너져 공사장으로 바닷물이 유입됐고, 추가붕괴 우려에 인근 상인과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위는 해당 현장이 해안 매립해 조성하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새거나 흐르는 것을 막는 '차수'에 대한 시공과 관리가 부실했던 것을 붕괴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조사위에 따르면 해당 공사 현장의 당초 설계에는 차수성이 있는 흙막이 벽체가 계획됐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해 차수성이 떨어지는 다른 흙막이 벽체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보수차수공법이 고려되지 않았고, 물이 새면서 벽체가 붕괴됐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수시는 지하 터파기 시공에서도 과공학과 흙막이 수평비탈대 시공 지연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건설사와 감리사,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매립부지 흙막이 공사 심의를 강화하고, 공사 안전점검에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

## 광주·전남 줄지 않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지난해 69건 적발 입건

광주·전남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 지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등으로 수사한 사건이 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69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특사경이 입건한 건수는 지난 2019년 51건, 2020년 53건, 2021년 62건 등 꾸준한 증가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특사경은 지난해 33건을 입건했다. 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7건을 차지했으며 소방시설법 위반 19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5건, 소방

시설공사법 위반 2건 등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전남 특사경은 36건을 입건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9건, 소방시설법 위반 12건, 소방활동 방해사범 3건, 소방시설공사법 위반 2건 등이 적발됐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해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소방·구급대원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건물 리모델링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 서구 서향2길3(서흥동)

###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